

무안군 관광사업 행정절차 무시 '말썽'

갯벌 관광지·분청사기 전시관 건립 등 국가 공모사업 3건 일정 쫓겨 국비 반납 위기 몰리자 작년 12월 무더기 발주

무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를 추진하면서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생태갯벌경관 조성사업(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45억 5200만원) ▲분청사기 명칭(名所) 전시관

건립(국비 10억원 등 총 16억6700만원) ▲몽탄 폐철도부지 사업(국비 7억5200만원 등 총 14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갯벌과 영산강, 분청사기, 폐철도부지 등 지역의 특색있는 경관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주민소득 증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예로를 겪으며 더디게 진행됐다. 생태갯

벌 조성사업은 당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다가 관광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분청사기 명칭전시관 사업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과 김옥수 명장간 의견차로 더디게 추진됐다. 폐철도부지 사업 역시 철도청과 옛 사장역 폐철도부지 임대와 매입과정에서 지연됐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군은 지난해 12월 20~26일 무더기로 3개 사업 관련 공사발주를 했다. 군은 2014년 12월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지만 수십억원의 국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생태갯벌 경관조성 사업의 경우 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10억7000여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8일 현재까지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안군 관광과 관계자는 "정부 공모사업이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기간은 3년이지만 촉박하다. 용역을 발주하고 납품서를 받으려면 빨라도 1년 이상 걸리고, 상위 기관의 승인절차를 밟는데 1년 이상 걸려 세 시기에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안지역 양파재배 농업인들이 최근 무안군 청계면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학원 산하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양파기계를 이용한 옮겨심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양파 기계재배 300ha로 확대

양파기계 정식 연시회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이 양파재배 기계화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청계면 청천리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학원 산하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양파기계 정식(옮겨심기)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는 양파기계 정식을 신청한 생산자 14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시회는 현재 보급돼 있는 4조식 양파 이식기를 이용해 8조식 양파를 심는

신기술을 선보였고, 6조식 양파 이식기도 함께 시연했다. 두 기계 모두 90% 이상 양파 정식에 성공했다. 군은 이번 연시회를 계기로 기계 정식 규모를 총 양파 재배면적의 10% 수준인 3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양파 기계 정식은 심는 깊이를 조절(1~4cm)할 수 있어 겨울철 추위에도 피해가 감소했고, 규격이 일정해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할 수 있다"며 "작업시간 단축으로 양파재배의 주 노동력인 여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함평 4·8만세운동 재현 함평군과 해보면청년회(회장 이준행)가 8일 해보면 3·1운동 만세기념공원과 문장장터 일대에서 4.8만세운동 추모식과 재현행사를 갖고 있다. 4·8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8일 문장 장날을 맞아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주도해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함평군 제공>

함평농협 새 조합장 첫 인사 '잡음' 전무 1명 외부 영입 눈살 1대1 교류원칙도 안지켜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함평농협이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함평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함평관내 5개 단위농협 조합장들은 협의회를 열고 지난 1일자로 직원들의 승진·전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함평농협은 오는 6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M급 전무 자리에 자체 승진이 아닌 타 농협에서 M급 승진자를 영입했다. 또 M급직원 1명을 증원했으며 직원 1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출하는 등 다양한 인사교류가 되어 함에 대해 불구하고 함

평농협은 증원만 하고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 함평농협이 외부에서 승진한 M급 1명을 전무로 증원하며 퇴직 대기자에게 포함해 M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당초 2015년 사업계획한 정규직 정원산정에 맞지 않게 됐다. M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4~6월 3개월간 2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1대1 전임·전출하는 교류인사가 됐다면 1년에 5000만~7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평농협 A 조합장은 최근 농협 상임이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걸고 사업추진을 했으나 갑자기 여론에 밀려 시기상조라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상임이사직에 거론된 B전무가 정년을 앞두고 갑자기 자리를 내려놓아 내부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이 취임 이후 첫 단추부터 매끄럽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뺨긋' 거린다"며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C 씨는 "앞으로 인접 농협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손실까지 감안한 무리한 인사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을 고려한 동등한 인사교류가 원칙이 되어 하고,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선거가 끝난 후 내부직원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 다소 인사에 무리가 있었다"며 "직원들과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직원 1명을 전출하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제도를 추진하려 했으나 여기저기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영광 보리·굴비산업 탄력 받는다

특구 지정 2019년까지 연장...16개 사업 추진
영광군 보리산업과 굴비산업이 한껏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정받은 '영광 보리산업특구'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특구 연장을 신청한 결과 2019년까지 5년간 연장이 승인됐다. 특구지정 면적도 범성면이 추가됨에 따라 108만9627㎡로 확대돼 10개 읍·면 모두 특구로 지정받아 우리나라 보리산업의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또한 '영광 굴비산업 특구' 지정도 2019년까지 5년간 연장받았다. 군은 "지난 7일 중소기업청 고시(제 2015-20호)에 따라 연장됨에 따라 총 사업비 215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영광 굴비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 보리 수매제 폐지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 지정과 영광 쌀쌀 지리적표시제 등록, 잘보리 제분 공장·보리가공 생산시설 확충 등 향후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 다양한 고품질의 보리제품을 개발·유통하는 등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보리산업 특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 범성 채종포 단지 면적 추가, 잘보리 6차산업, 보리특화거리 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굴비산업특구 지정기간이 향후 5년간 연장됨으로써 범성포 단오제행사는 물론 옥외광고물, 굴비특허 등 영광굴비와 관련된 산업의 특례적용과 지속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점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동 아파트"임대

▶ 수완동 현진애버빌 1층/53평
정남향/ 학군최상/ 로얄동
즉시입주가 가능

◆ 월세 보2억 / 월100만
◆ 전세 4억

"월산동 빌라"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광전파크 방2개
20평/ 정남향/ 신축 내부깨끗/ 주차시설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차평동 상가"매매

▶ 차평동 중흥 스카이 31 1층
1층 상가/ 62평
800세대/ 시청입구/ 상권최상

◆ 임대 보1억5000 / 월650(부가세별도)
◆ 매매 12억 3000만원(대출4억)

"차평동 바(BAR)" 임대

▶ 차평동 2층 중심상업지역
실평수 30평/ 룸1개
현성업종/ 상권최상/ 즉시입점 가능

◆ 권리금 1500만원
◆ 보3000 / 월190

해쓷음 부동산 674 - 2006